

나주시 '남도장터' 쇼핑몰 택배비 지원 호응

전남 첫 지역 농가·업체 1건당 1000원...100만원 한도 126곳 지난해 22억 판매고...택배 건수만 월 3400건

나주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판매 규모가 5배 이상 커진 전남도의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지역 업체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5월부터 남도장터에서 주문·발송한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역 농가와 농식품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택배비 지원은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가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나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 중이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사전 접수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해 1곳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규 업체는 입점 시 주소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남도장터에 입점한 나주시 지역 농가·업체 수는 총 126개소로 지난해 약 22억4700만원(월 평균 1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송한 택배 건수는 월평균 3400건에 연간 총 4만1000건에 달했다.

주요 품목별 매출액은 농산물 10억9300만원(48%), 축산물 9억4000만원(42%), 가공식품 1억9500만원(9%), 기타 1900만원(1%) 등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남도장터는 전남도내 1300여 농축수산물 업체가 입점해 있다. 2020년에는 직전년도 대비 약 5배 증가한 326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고로 기록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온라인 소비문화 증가에 발맞춰 시행 중인 택배비 지원이 지역 농가와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농산물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개별공시지가 31일 공식 함평군 내달까지 이의신청

함평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19만75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46%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준공 등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봉사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장성호 수변길 환경 정화 민·관·군 힘 모은다

군·상무대 기계화·공병학교·해병대전우회 등 28일까지 북하면 사회단체·수변길마켓 참여농가 주차장 대청소 등

장성의 관광명소인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에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았다.

장성군에 따르면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육군공병학교, 해병대장성전우회는 지난 24일부터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40명의 인원과 군사작전용 교량 가설단정 3대, 장성군 바지선 3대가 투입돼 호수 내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장성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장성호 수변길마켓 참여농가들은 주차장 대청소를 실시했다.

지난 23일 오전 주차장에 집결한 농민들은 수변길 주변과 주차장 등지의 쓰레기를 치우며 손님맞

이 준비를 했다. 참여농가들은 매일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수변길마켓과 주차장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성호 인접 지역인 북하면 주민들도 환경 정화에 동참하고 있다.

북하면 사회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는 5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1회씩 호수 상류지역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지난 18일 수거작업에서는 1.3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수변길과 두 개의 출렁다리를 지닌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 평균 5000명이 찾는 치유 관광지라며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상무대 육군기계화학교, 육군공병학교 장병과 해병대장성전우회 회원들이 장성호 수변길에서 부유물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성군 제공>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추진 강진군, 군동 안포 등 5곳

강진군이 지역 경로당 5개소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올해 도비 13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투입해 강진읍분회, 군동 안포, 성전 신기, 병영 동삼인, 읍천 화신경로당 등 총 5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내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상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가 마무리되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부담을 없애 노인 복지 실현은 물론, 전기료 절감 등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난방료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경로당의 운영비 절감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속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경로당 44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3kw~15kw 용량의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화순군, 영농효율 높은 '벼 드문 모심기' 시연

생산비 절감·소득 증대 기여

화순군이 영농효율이 높은 '벼 드문 모심기'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1일 현천면 한계마을 들판에서 농주농협과 함께 전업농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벼 드문 모심기'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

드문 모심기는 모판 파종량을 250~300g 만큼 늘리고 3.3㎡(1평당) 50주, 주당 5본 내외로 드물게 모내기하는 재배기술이다. 사용되는 모판 수가 줄어 단위면적당 육묘와 이앙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 다.

화순군은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3곳 30ha 면적에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상재해에 대응한 안정성과 적정 수확량 확보를 위해 3.3㎡당 50주 식재 기술보급 방향으로 설정하고 화순군 실정에



맞춰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문 모심기와 같이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재배기술들이 빠르게 확산하도록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안전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다.

담양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1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담양군이 기초단체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사진>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위생관리, 정부 주요시책, 가점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추진했으며,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철저한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소비까지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